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도 '사리'

[원문] 시적상림문기주(示跡雙林問幾秋) 문수유보대시구(文殊留寶待時求) 전신사리금유재(全身舍利今猶在) 보사군생예불휴(普使群生禮不休) -통도사 금강계단 적멸보궁

[번역] 문노니, 쌍림에서 열반에 드신지 그 몇 해인가 문수보살 보배를 모시고 때와 사람을 기다렸네. 부처님 진신사리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많은 군생을 예배하여 쉬지 않네.

[신해(禪解)] 적멸보궁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신 전각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다섯 군데가 있다. 원래, 적멸보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인도 마가다국 가야성의 남쪽 보리수 아래 금강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적멸도량회가 최초인데, 언덕 모양의 계단을 쌓고 불사리를 봉안, 부처님이 항상 그곳에서 적멸(寂滅)의 법(法)을 설했던 곳이다.

불가에서는 진신사리를 부처님과 동일체(同一體)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 이상으로 숭배를 하고 있으며,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에서는 따로 불상을 조성하지 않는다.

불자들은 사리에 대해 수행자가 열반 후 남기는 구슬모양의 유골로만 대개 알고 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부처님이 남기신 경전도 일종의 진신사리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골(遺骨)의 구슬이 유(有)의 사리라고 한다면, 경전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주옥같은 언(言)의 사리인 것이다. 때문에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항상 몸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5대 적멸보궁이 있는데 불교 신도들에게 기도도량과 순례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장 신성한 성지(聖地)로 각인돼 있다. 불자라면 반드시 한번은 가 보아야 할 정신적인 기도도량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 중 하나인 통도사 금강계단에 있는 적멸보궁의 진신사리는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이곳의 진신사리는 신라의 자장(慈藏) 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부처님의 사리와 정골(頂骨)로 알려져 있다. 이를 니중 각각 다섯 곳으로 나누어 보관했는데 이곳이 바로 5대 적멸보궁이다. 양산 통도사(通度寺),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上院寺), 설악산 봉정암(鳳頂庵), 태백산 정암사(淨巖寺), 사자산 법흥사

(法興寺)이다. 통도사 금강계단에 걸려 있는 주련의 편액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에 대한 위대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부처님이 쌍림에서 열반하신 후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상 어리석은 중생들의 곁에서 머물러 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문노니 쌍림에서 열반에 드신지 그 몇 해인가 문수보살 보배를 모시고 때와 사람을 기다렸네.' 문수보살이 누구인가. 그는 바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대승보살 가운데 한사람이다. 문수는 묘(妙)의 뜻이고 사리는 머리(頭), 덕(德), 길상(吉祥)의 뜻이므로 지혜가 뛰어난 공덕을 가리키는데 석가모니불의 보처로서 지혜를 관하고 있는 보살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진신사리로 남아 2500여 년이 지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찌 보면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유언에 대해 역행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과거 부처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마음이란 실상의 존재를 부인했을 것이다. 참 마음'이 무엇이며, '참 존재'가 무엇이며, '참 나'가 무엇인지를 정녕 우리는 모르고 살아 왔을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부처님을 두고 우리는 절대적인 성인(聖人)으로 모시고 있는 까닭이다.

통도사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묻힌 곳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의 진신사리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수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곳은 어느 노스님이 진신사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첩첩산중의 토굴 속으로 파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통도사 금강계단은 불가에서나 국가에서나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보 290호이다. 원래 금강계단은 승려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과정을 거친 다음 계율을 내려주는 수계의 식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놓여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

그런고로 주련에 새겨진 그 깊고 깊은 선구(禪句)를 어찌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처님 진신사리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많은 군생을 예배하여 쉬지 않네.'

삶이란 남을 존경함으로써 얻는 겸손에서부터 그 존재가치를 지닌다. 부처님은 이를 현세의 사람들에게도 아직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그 마음을 낮추어 보라! 그래야만 진정 자신의 '사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선: 본회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

법이 곧 마음(法卽是心)

[원문] 自性眞實 非因非果 法卽是心義 自心是菩提 自心是涅槃 若言心外 有佛及菩提可得 無有是處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의 본성은 진실하여 어떤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인 것도 아니니라. 법(法):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곧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부처며 자기의 마음이 뚜렷이 밝고 고요히 비치는 열반이 아니라. 그러므로 마음 바깥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라.

[해설]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하나로서의 마음과 내 마음은 분명 다름니다. 내 마음은 나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달마 스님이 제시한 마음은 우주와 하나인 본래 실상자리로서의 마음자리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반야(般若; 지혜)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마음자리는 바로 반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뛰어 가는 것이 정도이고, 최상승 수행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의 본성(本性)은 진실하여 어떤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인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습니다. 그 마음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입니다. 마음이 모양이 있으면 생사가 있겠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습니다. 마음자리에서는 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깨침도 더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법(法)이 곧 마음'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견해가 법이란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란 마음이고, 부처님이고,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기의 마음이 뚜렷이 밝고 고요히 비치는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무시(無始) 이래 익혀온 습(習)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 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집 가고 장가를 가야 한다는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이라는 겁니다. 습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無始) 익혀온 습 때문에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도리를 알 수는 있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익혀온 습을 녹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과 업(業)을 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

진을 통해서 업을 녹이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무량수(無量壽; 무한한 수명)며 무량광(無量光; 무한한 빛)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마음 바깥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믿고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정진하십시오. 일 분 정진하면 일 분 행한 만큼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고, 한 시간 정진하면 한 시간 행한 만큼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정확히 모르면 부처님 또한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인도에서 출현하셨던 역사상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부처님은 형상을 가진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반야(般若) 경전인 <금강경>에서 '악이색견야 이음성구야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즉,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알려고 하는 자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형상에도, 소리에도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설한 경을 믿고 행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달마 수선도(修禪圖), 금추 이남호 작(김창배 소장).

삶이란 타인 존경해서 얻는 겸손으로 존재가치 지녀 부처님 진신사리로 남아 지금도 '사람과 때' 기다려

난 오늘날에도 문수보살을 데리고 '사람과 때'를 기다려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현(先賢)이란 말이 있다. 이는 앞서간 지혜가 뛰어나고 고귀한 현자(賢者)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세를 살면서 아직도 뛰어난 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고 때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부처님은 문수보살을 모시고 그 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진신사리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많은 군생을 예배하여 쉬지 않네.'

그렇다. 부처님은 이미 열반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진신사리로 남아 우리를 돌아보 주고 있다. 이런 부처님께 우리 중생들이 어찌 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있을 때는 사실, 가람도 필요 없었으며 경전도 필요치 않았다.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곧 가람이며 부처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곧 경전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곧 교(敎)였으며 마음이 선(禪)이 됐던 까닭이다. 그 후 교는 경전을 통해 법보(法寶)가 됐으며 선은 스님을 통해 오늘날의 승보(僧寶)가 됐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열반을 하신 이후에 사리로 남아 불보(佛寶)가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인 불보승 삼보(三寶)가 아니겠는가!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오직 법만을 따르되 나를 상징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이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유는 바로 맹목적인 기복 신앙의 대상이 될

삶의 고통 속에 존재감마저 상실했는지언정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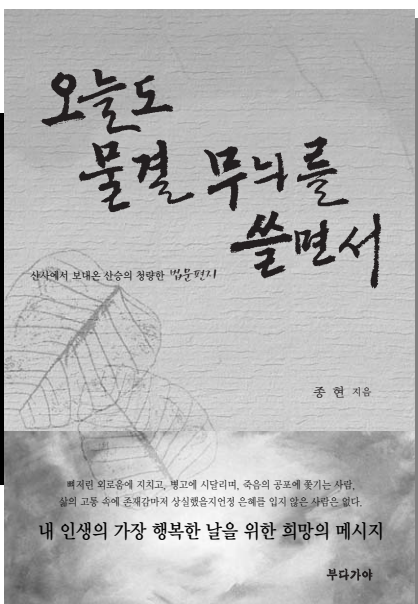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새벽 여명의 절 마당을 쓸며 세상의 이치를 관조하는 산속의 스님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날이 멀지 않음을 설파한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띄워 보낸다.

오늘도

물결 무늬를 쓸면서

종현 스님의 산사에서 보내온 청량한 법문 편지

종현 지음 / 255쪽 / 값 12,000원



경전연구회 2년결사 경전강좌안내

출가스님만의 공부모임 경전연구회에서 아래와 같이 2년 결사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 강 주: 지리산 칠불사 통광 큰스님
경 전: 진심직설, 몽산 법어, 입입 사행론, 중도가, 간화 결의론, 원각경, 달마대사 혈맥론, 달마대사 관심론

- 과 정: 2년 과정
개 강: 2009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3-6시)
모집인원: 50명 선착순(40여명 가등록 되었음)
장 소: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수 강 료: 50만원(1년)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는 공부모임에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 계좌번호: 102608-01-001671(우체국) 예금주: 경전연구회
문 의: 회장 : 011-420-7838(지장스님) 총무 010-7963-7070(법정스님)
재무 : 016-9669-3917(정담스님)

불교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합장